

보도설명자료

(‘13.12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물티슈에 ‘가습기 살균제’성분 불안감 커져

(‘13.12.25, SBS 8시 뉴스)

1. 기사내용

-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
 - 해당 제품들이 공산품으로 관리중이어서 안전기준 마련 및 위해성 평가 등에서 제외되어 위해하다고 보도
 - 또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 개정안 발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일반 물티슈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관리중이며,
 - 물티슈 형태이지만 별도 목적을 가진 제품(클렌징티슈 등), 손세정제 등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음
- 보도에서 나온 물티슈 19개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, 6개 제품에서 MIT, CMIT가 검출되었으나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
 - * 가습기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PGH, PHMG는 사용되지 않았음
 - 또한,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(관계부처 합동)에 따라 식약처에서 물티슈 원료물질 위해성평가 수행 중(‘14.12월 완료예정)
- 향후 물티슈, 화장비누 등 인체세정용 제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관계부처(식약처, 환경부)와 협의예정

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기존 법(「품공법」, 「환경
보건법」 등)체계에서도 수행가능

※ 관련 문의 : 생활제품안전과 정의식 과장(02-509-7248)